

함께 꾸는 꿈이 만들어낸 화음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이채원

1. 꿈인가 판타지인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한다. 세계적인 지휘자 강마에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말단경찰 건우에게 꿈을 꾸기라도 하라고 질책하는 장면에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집약된다. 사실상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슬로건이 드라마틱하게 형상화된다. 악보조차 보지 못하던 건우가 천재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몇 달 만에 오케스트라를 진두지휘하며, 카바레에서 트럼펫을 불던 3류 인생이 어엿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약하고, 오랜 세월 주부로서 자신의 꿈과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온 오십 대 여성이 우여곡절 끝에 솔로 연주를 훌륭하게 해내기도 한다. ‘치매’와 ‘청신경 종양’ 같은 치명적인 병마와 싸우면서도, 가난과 편견에 맞서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조차 유머를 잃지 않으며 활기 넘치게 서로를 배려한다. 결국 그들의 그런 모습은 그들에게 클래식이란 가당찮은 것이라고

여기고 무시했던 강마예를 가장 먼저 변화시킨다.

그들에게는 꿈 못지않게 큰 시련과 억압 역시 즐기치게 이어진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기다리고 그 고비를 넘었다 싶었는데 또다시 더 큰 산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도대체가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같다. 청력을 상실해가면서까지, 치매에 걸려서까지, 직장을 잃으면서까지, 고생해서 연습한 공연이 무산되면서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한다. 때로 무모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승리한다. 그들의 악기를 부수고 공연을 망치려 했던 수재민들을 그들의 편으로 만들었고, 막강한 정치권력인 시장을 조롱했으며, 아내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억압했던 남편까지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도저히 융화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미친한 단원들과 독선적인 지휘자 강마예와의 인간적인 교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위치에 선 강마예는 단원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역할모델이 되기도 했으며 강마예 자신 역시 단원들에 의해 변화하고 음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성숙하게 된다.

실패와 장벽에도 계속 도전하는 그들의 모습과 결국 감동적인 공연을 해내는 그들의 성취는 일견 판타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와 비슷하게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드라마이기에 가능한, 말 그대로 판타지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건우가 처음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가 내뱉은 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록 지휘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고 해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루미의 말에 건우는 “나 꿈 그렇게 안 꾀. 와이프랑 애들이랑 스물 몇 평 아파트에서 오순도순 그거면 최고라고 생각해. 나에게는 그것도 너무 버겁다”라고 말한다. 사실 상 그것이 현실 아닌가. 나와 내 가족이 오순도순 살아키는 것마저도 버거운

것이 우리가 밭 딛고 있는 세상이다. 혁권의 대사처럼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결국 꿈을 놓지 않았다. 공연 당일 애써 갈등을 억누르며 교통정리를 하던 건우는 차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경찰 모자를 던져버리며 달려 왔다.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소시민 혁권 역시 끝내 자신의 꿈에서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것은 과연 판타지인가?

실제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판타지와 같은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되었다. 강마에가 자신을 밀어내고 건우를 추대하는 단원들에게 본때를 보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넬라 판타지아」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판타지와 같은 장면은 「합창 교향곡」 공연에서 합창단의 등장과 어린 강마에의 모습과 현재 강마에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는 감동적인 장면에서도 이어지고, 물에 빠진 루미가 꿈을 꾸는 것 같은 환상적인 장면에서도 묘사된다. 또한 강마에가 최석균 시장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항의하는 장면에서도 음악에 의한 판타지가 형상화된다. 그러나 <베토벤 바이러스>는 판타지가 아니라 꿈에 대한 이야기이다. 강마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늘에 떠 있는 바라만 봐야 하는 별”이 아니라 “뭔가 해야 하고 자신의 냄새와 색깔을 입혀야 하는 꿈”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 고고한 클래식 지휘자 강마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휘한 대중가요가 「거위의 꿈」이었다는 것 역시 의미심장하다. <베토벤 바이러스>가 판타지로 향하지 않고 진정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려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이것을 탐색해보는다면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가진 호소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반대편에서 닳을 올리다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매회 생동감이 넘칠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반전으로 그 다음 회를 기다리게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 시나리오 작가 가와베 가즈토의 말처럼 맞은 편 강가에서 배를 띄웠기 때문이다. 즉, 계속해서 외부에서 장애물을 만들었다. 드라마는 소설과 달리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거나 내적 갈등을 묘사하기 어려운 매체이다. 그 때문에 드라마에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맞은 편 강가에서 배를 띄우는 것, 즉 외부에서 갈등의 요소를 설정하는 것이다. <베토벤 바이러스>에서는 정말이지 끊임없이 장애물이 설정된다. 한 가지 장애를 넘으면서 갈등을 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이 끝까지 반복된다. 게다가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설정한 장애물은 ‘백혈병’ 같은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필진성을 확보한 것이며, 가학적인 고부 갈등과 같이 진부한 것도 아니고, 특히 백마 탄 왕자의 등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드라마에 신선함과 현실감을 부여하며 시청자를 더욱 몰입하게 했다.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강마애와 단원들이 강춘배 시장의 모욕적인 행태를 기점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공연을 위한 작품을 완성할 시기가 되자 건우의 복귀 날짜가 걸리고 혁권마저 회사일에 걸린다. 여기서 건우와 혁권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현실 쪽에 발을 디뎌야 하기에, 사소한 것 같은 이 장애물의 설정이 드라마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기도 했다. 여기서 꿈을 꾸기 힘든 사람들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설정은 계속 이어진다. 희연의 남편은 공연장에 나타나 희연을 끌고 가고 루미의 귀에 이명이 시작되고 초등학생 관객들은 떠들기 시작한

다. 여기서 강마에는 뜻밖의 선택을 한다. 건우를 대신하는 솔로 연주자로 남편에게 잡혀간 희연을 선택한 것이다. 희연에게 심한 말을 하며 큰 모욕을 주었던 강마에였기에 이것은 분명 반전이지만, 공연 직전까지 혼자 연습에 몰두했던 희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분노와 서러움과 억눌렸던 꿈을 분출해낸 그녀의 연주가 훌륭했던 것은 더 이상 판타지가 아니라 장애의 극복이며 자신의 색깔과 목소리가 담긴 꿈의 실현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안 될 것 같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기가 무섭게 시향 설립과 함께 원래의 멤버들은 제외되고 만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문을 두드린다. 또한 강마에 역시 겉으로는 그들을 배척하는 척 하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들이 시향에 합류하자 이번에는 정식 단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것을 강마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멋지게 극복하자 이번엔 수재민들이 장애물로 등장한다. 그들까지 감동시키며 공연을 멋지게 끝냈는가 싶었는데 정치적 야심으로 시향을 짓밟으려는 최석균 의원이 장애물로 등장한다. 결국 강마에는 문제가 되는 단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의 오해의 골이 깊어진다. 게다가 건우와의 소통마저 잘 되지 않는다. 또한 강마에는 유일하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를 이해했던 루미조차 내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루미를 비롯한 단원들은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해가지만 번번이 암초를 만난다. 이 과정에서 강마에와 단원들과의 핑퐁게임은 극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재미와 더불어 감동을 준다. 이렇게 맞은편 강가에서 띄운 배들은 그때 그때 줄속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고 구성된 것이어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인다. 여기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넘치는 생동감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장애물들을 극복해나가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빼어난 개성 덕이었다.

3. 빛나는 캐릭터들과 차별화된 삼각관계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빛나게 만든 것은 역시 독특한 캐릭터들이다. 이미 드라마 방영 내내 김명민이 연기한 강마에의 독특한 어법과 스타일은 인구에 회자되었으며, 극의 정점에 서 있는 강마에에서 시작해 두루미, 강건우, 배용기, 박혁권, 김갑용, 하이든 등의 단원들뿐만 아니라 강춘배 시장과 최석균 의원, 정명환과 김계장까지 모두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창조되었다. <베토벤 바이러스>가 그토록 생기 있고 유머 넘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다채로운 개성의 인물들이 이루는 조화 덕분이었다. 그들 모두가 각각의 음색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처럼 어우러져 멋진 화음을 들려주는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다.

우선 강마에는 정말 독특한 캐릭터이다. 그가 등장하면 곧바로 시선이 집중된다. 눈빛과 표정, 발성과 발음까지 완벽하다. 게다가 그의 대사는 힘이 있으면서도 재미있다.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유머를 발휘한다. 단원들과 교감을 느낄수록 이죽거리면서도 결국 살짝 감정을 드러내는 강마에의 표정과 눈빛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으며 배우 김명민의 탁월함이 돋보이는 장면들이었다. 두루미는 밝고 낙천적인 캐릭터이지만 그 씩씩함 뒤에 페이스스가 서려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대부분의 TV 드라마 여주인공과 달리 신데렐라가 아니다. 또한 대단한 커리어우먼도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두루미가 지닌 강점이 된다. 한편 강건우는 사실 강마에나 두루미에 비하면 힘이 떨어지는 캐릭터이다. 중반 부분 그가 강마에의 호의를 거절하며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그의 심리가 설득력 있게 표현되지 못해 공감을 일으키는 힘이 부족했다. 즉, 그는 강마에와는 다른 개성을 가지고 강마에의 반대편에서 드라마의 긴장과 조화를 만들어

가는 인물이었으나, 강마에와 균형을 맞추기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힘이 부족해 인물의 축이 한 곳으로 기울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세 중심인물 외에도 다른 모든 인물들이 각자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드라마를 생동감 있게 만들었으며, 드라마 구성에서 모두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는 캐릭터들이었다. 또한 그 인물 중 어떤 인물도 전형적이거나 천편일률적이지 않았다. 펄떡펄떡 뛰는 생선처럼 말 그대로 극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한편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중반으로 향하면서 강마에 - 루미 - 건우의 삼각관계에 대해 항의하는 시청자들이 있었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클래식에 관한 드라마인데 기존 드라마에서와 같이 진부한 삼각관계를 설정하여 <베토벤 바이러스>의 정체성을 흐리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흥미를 위해 양념으로 첨가된 작위적인 설정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각각의 캐릭터를 묘사하고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인 장치였다. 루미가 강마에를 바라보게 된 것은 첫 이명을 경험하면서부터였다. 그토록 고대하던 첫 공연이 시작되지만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는 강마에의 손짓은 그녀에게 구원의 빛이었다. 이후 강마에는 자신의 방식대로 때로 자극하고 때로 위로하면서 청력을 잃어가는 루미를 도와준다. ‘착한 건우’가 아닌 ‘미운 건우’에게 끌리는 루미의 감정은 ‘나쁜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통속적인 설정이 아니다. 사실상 강마에는 ‘나쁜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나쁜 남자’인 척 했을 뿐이며 그것이 그의 자기방어기제였다는 것을 루미는 간파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슴속 이야기를 이해하는 루미에게 강마에 역시 위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데도 자신의 음악색을 지키기 위해 홀로서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인정한 그들이기에 단지 손 한 번 잡은 장면에서조차 그 애절함이 전달될 수 있었다.

4. 그들의 땀과 꿈과 눈물이 녹아 있는 결정(結晶): 음악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국내 방송사에서 처음 시도한 클래식 드라마이기에 음악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베토벤 바이러스>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게 했으며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창이 되었다. 그런데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듣는 클래식 음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한 곡 한 곡이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들의 땀과 꿈과 눈물이 녹아 있는 결정체가 된다. 그들의 첫 공연에서 연주된 ‘리베르 탱고’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끝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억눌린 이준마 정희연의 자기표현이며, ‘합창 교향곡’을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두루미는 공연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귀까지 멀어가는 그녀에게 그 순간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함께할 수 있는 ‘합창 교향곡’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물인지 절절하게 보여준다. 공연 장면마다 지휘자 강마에와 각각의 연주자들을 패닝하며 조명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시청자의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그 곡을 연주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들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꿈과 노력을 목격했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감동이 배가될 수 있었다.

또한 <베토벤 바이러스>가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독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삶에 대한 은유가 될 수 있었다. 한 명의 연주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완성되지 않는다. 긴 기다림 속에 한 소절을 연주할지라도 오케스트라에서 하찮은 악기란 없다. 즉, 하찮은 인간도 없는 것이다. 강마에는 바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휘자이며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이었다. 이 또한 우리의 인생과 사회와 세상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두루미

는 강마에에게 “처음엔 공연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더 귀하다”고 말한다. 또한 강건우는 “오케스트라는 함께해서 즐거운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강마에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그들의 연주 실력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만들어내는 화음이었다. 시향단원들이 강마에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강마에는 그들에게 사과하는 대신 함께 꿈을 꾸자고 말한다.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작은 위로라도 주는 것이 자신이 시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꿈이라고 말한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그들이 함께 꾸는 꿈이었고 그들은 그 꿈을 이루었다.

5. 나의 꿈은 살아 숨 쉬고 있는가?

지금까지 고찰했듯이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치밀한 구성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때로 시청자들을 웃게 하고 때로 울게 하며 공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베토벤 바이러스>가 시청자들의 가슴속 깊이 호소할 수 있었던 힘은 역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잠자고 있는, 그러나 버리지 못하는 꿈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나 자신의 꿈 역시 돌아보게 된다. 나는 진정 꿈을 가지고 있는가. ‘바라만 봐야 하는 별’과 같은 허망한 공상이 아니라 나의 색깔과 나의 흔적이 깃든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뭔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비록 남들이 비웃는 ‘거위의 꿈’일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땀’을 흘리는가. 아니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라며 핑계와 포기과 자조와 냉소로 살아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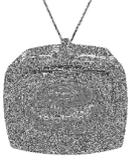
물론 먹고 사는 현실도 중요하다. 또한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의 단란한

일상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척박한 현실에 발 디디고 서 있을지라도 꿈을 놓지 않기에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전설적인 혁명가 체 게바라 평전에 실린 글이 떠오른다.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라, 그러나 리얼리스트가 되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는 바로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끝내 현실 속에서 펼쳐 보인 평범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의 꿈과 땀과 눈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땀과 눈물의 결정체는 바로 감동적인 그들의 연주였고 음악이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연주는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감동적이었다. 함께 꾸는 꿈이 이루어낸 화음이었기 때문이다.

일반부문 우수작 | 함께 꾸는 꿈이 만들어낸 화음



일반부문 우수작